

제주도의 장묘문화

- 서귀포시 예래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다카무라 료헤이(高村龍平)*

I. 머리말

최근 언론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장묘문화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운동은 묘지가 국토를 침범한다 하여 묘지 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특히 심각하다. 제주도의 묘에는 산담이 있고 그만큼 면적도 늘어난다. 게다가 화장률이 전국 평균(30.7%)보다 훨씬 낮은 11.4%이다. (『제민일보』 2001년 8월 23일자).

화장을 보급하기 위해 장묘문화 개선운동에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 관련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장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이 화장 관련 시설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외국 사례를 참고로 현대적인 장묘 시설을 건설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자고 한다(박복순, 연도불명 및 김창석, 2001). 하나의 사례가 지난 10월 9일에 제주 KBS에서 방송된 "우리의 묘지, 영원한 안식처인가"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프랑

* 京都大學 大學院 博士課程 / 606-8502 京都市 左京區 京都大學大學院 農學研究科 生物資源經濟學專攻 高村龍平 / 전화번호 : 81-75-753-6197

스 파리의 공동묘지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산책이나 독서를 즐기는 공간이라고 소개하였다. 그에 반해 서귀포시 공설공동묘지는 밤에 담력훈련의 대상이 될 정도 무서운 장소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묘지나 화장장 등을 피하는 의식이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 한경구와 박경립은 일제시대 공동묘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묘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죽음의 공간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었고, 그러면서 원한을 품은 귀신이 있는 곳이라는 묘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말이다(한경구와 박경립, 1998).

필자도 전통적인 묘지가 무섭고 피해야만 하는 곳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 예래동에서 조사중이던 필자는 어느 날 30~40대 남자들 몇 명과 들판에 가서 작업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들판에는 산담이 둘러싼 묘가 하나 있었다. 남자들은 그 묘를 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나자 그 묘 바로 옆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 더욱이 필자가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남원을 출신인 한 남자도, “친구 집에 가는 올레에 묘가 하나 있어 거기를 지나가기가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묘지는 어렸을 때 놀이터였다. 산담 위에 올라가서 칼싸움도 하고, 봉분(封墳) 위에서 둥글기도 했다”고 전해주었다. 사람들의 묘지에 대한 태도는 장묘문화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묘지라는 공간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묘지에 대한 연구는 상례(喪禮)내지 장례(葬禮) 연구에 포함되는 예가 많다. 상·장례의 한 단계로서 임종(臨終)부터 성분(成墳)까지가 있고, 그 후 제례(祭禮)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제례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忌祭祀)이다.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무덤의 대한 기술은 지제(止祭)한 후 지내는 묘제(墓祭)의 부분까지 와서야 나타난다. 한편, 제주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벌초(伐草)는 제례와는 따로 서술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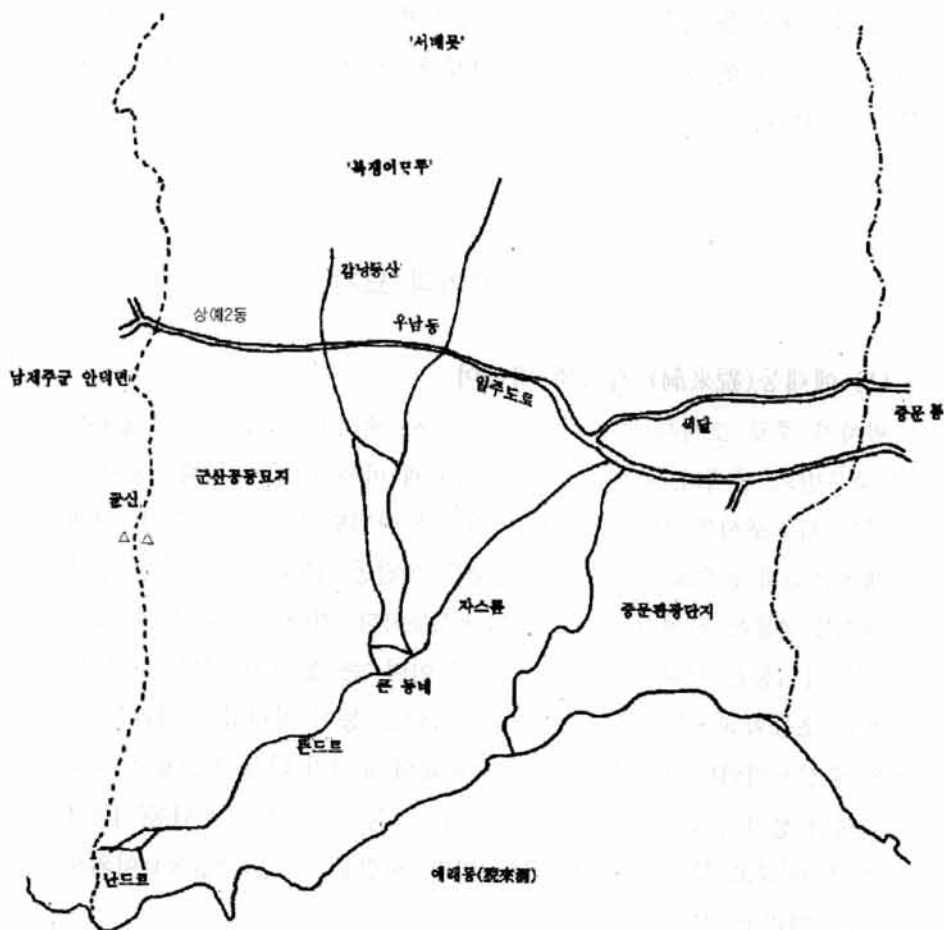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술 방법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묘지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묘를 만드는 과정(매장 장소의 선택 및 매장 작업)과 묘의 관리(벌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의 묘지에 관한 활동을 서술함으로써, 묘지에 어떤 태도로 접해왔으며 제주도의 묘지를 둘러싼 상황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예래동 지역과 묘지

(1) 예래동(猓來洞) 지역에 대하여

필자가 주로 조사를 하는 곳은 서귀포시 예래동 지역이다. 예래동은 옛 중문면의 상예리, 하예리, 색달리의 3개 마을이 합쳐진 행정동이다. 위치는 서귀포시의 서쪽 끝이며 남제주군 안덕면과 접하고 있다. 현재 예래동은 5개 통으로 나눈어진다. 1통은 색달동, 2통은 상예 1동, 3통은 상예 2동, 4통은 하예 1동, 5통은 하예 2통이다. 자연 마을은 10개 있으며, 2통과 4통은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큰 동네’라 한다. 바로 이곳에는 초등학교·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이 자리잡은 예래동 전체의 중심지역이다. 1통과 3통은 초등학교의 교구가 다를 정도로 비교적 독립적인 성격이 짙다. 2통에는 ‘자스름(수전동),’ 3통에는 ‘우남동’ 4통에는 ‘뜯드르’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다. 사람들은 1통(색달동) 이외의 지역을 ‘열리’라 부르고 있다.

1) 『한국민속총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이나 『제주의 민속 I』(제주도, 1993)에는 상례·장례는 ‘통과의례’로 벌초 내지 소분은 ‘세시풍속’으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이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해방 후 제주도를 주도한 감귤과 관광이라는 2대 산업의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예래동에는 관내에 중문관광단지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수렵장 등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이 지역에도 감귤이 많이 보급되었다. 이 두 산업은 지역 주민에게 현금 수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에 제주도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 묘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2000년 4월부터 제주도에서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2000년 11월부터 예래동 ‘큰 동네’의 한 가정에 머물면서 2001년 12월까지 자료수집 활동을 했다. 그 기간에 필자는 벌초·장례식·제사를 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기록을 하고, 주민들에게 묘지에 관한 경험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필자가 기거한 ‘큰 동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예래동의 인구및 세대수

통 별	세 대 수	인 구 수		
		합 계	남	여
1통	224	724	360	364
2통	332	1,120	548	572
3통	174	530	273	257
4통	297	930	467	463
5통	137	432	220	212
합계	1,164	3,736	1,868	1,868

(출전 : 2000년 2월 예래동 사무소 자료)

(2) 묘지

일제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장묘문화는 장지(葬地)를 결정하는 데에 풍수지리의 영향이 컸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풍수의 전문가인 ‘정시’를 불러 장지를 찾게 했다. 정시를 부르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장지를 고르면 그에 따라 장지를 정했다. 그 결과에 따라 장지는 밭과 들판, 주거지 바로 옆에 만들어졌다.²⁾

예래동의 여러 성씨 입촌조(入村祖)의 묘지를 보면 그 문중이 소유하는 땅 내부 곧, 산좌전(山座田)에 있는 경우도 있다(예 : 광산 김씨와 창녕 성씨의 선산<先山>). 또한 남의 집 땅에 있을 수도 있다(풍천 임씨 입촌조 묘가 그렇다고 하나 필자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른 마을에 사는 지파(支派)에 포함하는 종중(宗中)의 산좌전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진주 강씨 입촌조 묘).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도 있다. 물론 자기 땅에 쓰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편하겠지만 좋은 자리를 찾아 다닌 결과로 남의 땅에 매장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와의 합의에 따라 매장하기도 하며 몰래 매장해서 나중에 토지주의 허락을 받을 때도 있었다. 토지주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남이 소유하는 토지에 묘를 쓴 사례 1 (매장자로서) >

A씨(자스름 거주)는 약 25년 전에 정시를 불러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

-
- 2) 개인묘지를 만드는 경우 산담을 쌓는 것이 보통이다. 산담은 소나 말이 봉분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목적, 산불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한 산담 안에 부부가 나란히 묻히기도 하고, 형제나 며느리가 같이 묻힐 경우도 있다. ‘신문’ 이라고 하고 담의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네모 형, 반원형, 폭이 넓은 것, 좁은 것 등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문화적으로 여러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시간과 필자 능력 부족으로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뫼자리를 찾은 결과 상천리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땅에 매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밭에 미리 있던 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약 30보')에 정시가 터를 지정해 주어 그곳에 묘를 만든 것이었다. 토지주는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쓴 팻말을 묘 앞에 꽂아 두었다. A씨는 그 묘를 벌초할 때마다 팻말을 보았지만 쉽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미리 자리 잡았던 묘 바로 가까이 매장했으니 토지주를 찾아가도 허락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묘를 쓴 지 13년 후에 토지주를 찾아가서 지가(地價)의 4~5 배에 해당하는 금액, 돼지와 술을 대접한 후에야 허락을 받았다.

<남이 소유하는 토지에 묘를 쓴 사례 2 (토지주로서)>

B씨(큰 동네 거주)가 소유하는 과수원 내에는 산담으로 둘러싼 묘가 하나 있다. B씨는 72년도에 이 밭을 샀는데, 80년도에 예래동에 사는 여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곳에 묘를 썼다. B씨 부인에 의하면, 원래 망인(亡人)의 친경 집안에서 묘를 이장한 자리에 묻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망인의 사위 한 사람이 현재 묘가 있는 자리가 좋다고 이곳에 매장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B씨는 일반 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B씨에 의하면, 당시 땅 매매 시에 경작지를 집터로 만들 경우에는 경작지의 2배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고 올레를 만들 경우에는 3배를 지불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터로 만들 경우에 따라 두 배를 받았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었다. 미리 B씨 부부는 상주로부터 묘를 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설 묘지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는 무조건 썼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매장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역시 풍수지리에 따른 것으로 이미 있는 묘 가까이, 특히 위쪽에 묘를 쓴 경우다. 예래동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떤 집에서 초상이 나면, 영장 날(장지에 매장하는 날)에 자기 집안의 묘지를 지키기 위해서 묘지 주위에서 감시

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맥(脈) 위에 다른 묘가 들어서면 원래 있던 묘에 가는 기(氣)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다. <남이 소유하는 토지에 묘를 쓴 사례 1>에서는 위에 본 바와 같이 묘 아래쪽에 썼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다 해도 이미 있는 묘와 너무 가까워서, ‘맥을 침범’(A씨의 표현)했다고 토지주가 판단할까봐 A씨는 신경을 쓴 것이다.

이러한 매장 관행은 공동묘지 제도 도입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면서 1912년에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묘지 제도를 도입시켰다.³⁾ 예래동에도 이 시기에 공동묘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예래동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오래 된 공동묘지로는 1930년에 지정된 ‘군산 공동묘지’가 있다. 군산(軍山)은 마을 서쪽에 솟아오른 산이며, 그 정산 부근에는 묘를 쓰는 것이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것은 군산 정상에 누가 묘를 쓰면 주변 지역에는 가뭄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 사례가 1960년의 『제주신보』에 소개되어 있다. 이 기사는 ‘주인 없는 무덤으로 재앙 - 금지(禁地)에 암장(暗葬)해서 장마와 흉년- 군산 봉록(峰麓) 고을마다 소동’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기사에는 이 해의 장마가 군산 봉우리에 생긴 주인 모르는 묘 때문이라고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자 상예리 이장(里長)이 면(面)과 군(郡) 당국에게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는 내용이다(『제주신보』1960년 9월 21일자 2면).

군산 공동묘지는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북쪽에 있다. 그러나 원래 공동묘지로 지정된 구역은 능선 남쪽이었다. 남쪽은 풍수지리로 봐서 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북쪽에 매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현재 군산 공동묘지는 그렇게 해서 묘가 모이게 된 후 공동묘지로 지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1940년에 일주도로를 건너 북쪽 속칭 ‘감낭동산’에도 공

3) 줄고(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5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31~165쪽 참조.

동묘지가 생겼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피하는 예도 많고, 한 번 매장한 후에 다시 옮기기도 했다. 그만큼 풍수지리의 영향이 컸다고 추측된다.

매장 관행을 보다 크게 변화시킨 것은 1973년에 새로 생긴 마을공동묘지였다. 상예리(현재 2통)는 속칭 ‘서베못’에, 하예리(현재 4·5통)는 속칭 ‘복쟁이마루’에 공동묘지를 설치했다. 그 위치를 보면 일제시대에 공동묘지가 설치된 군산이나 ‘감낭동산’보다 훨씬 북쪽이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 ‘서베못’은 소나 말에 물을 먹이던 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일제시대에는 그 일대의 발주인들로 조직된 계(契)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베못’ 일대를 돌보면서 조직된 계(契)로부터 돈을 받는 관리자도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도 4·3 사건의 영향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 결국 공동묘지로 인해 죽은 자만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된 셈이다.

개인묘지는 터가 좋다고 하면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옆에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동묘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로 쓰기 위해서만 만들어졌다. 설치된 당시는 개인 땅에 매장하는 예도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상예동·하예동에서는 마을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한 노인은 ‘땅값도 비싸지고 어디로 묻겠냐’고 한다. 이전처럼 뒗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상예동 공동묘지는 동서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망인이 남자인 경우는 서쪽 구역으로 매장하고 여자인 경우 동쪽 구역으로 매장한다. 각 구역 내에서는 왼쪽(서쪽)으로부터 돌아가신 순서에 따라 매장하고 있다. 하예동 공동묘지는 4통 구역과 5통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남녀 구분은 없지만 역시 각 구역 내에서 왼쪽(북쪽)으로부터 돌아가신 순서에

4) 1통(색달동)과 3통(상예2동)도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3통에 속하는 ‘우남동’은 상예공동묘지 설치 후 주로 상예1동(현재 2통)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된 마을이다. 따라서 우남동에는 상예공동묘지에 매장되는 사람이 많다.

따라 매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동묘지에 매장할 경우에는 통장·노인 회장과 같은 마을회 임원이 그 자리에서 매장 작업을 지켜본다. 다른 마을에서는 공동묘지 안에서 터를 고르거나 산담을 만드는 예도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하예동은 공동묘지의 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III. 장례식에 따른 사람들의 역할

이 장에서는 장례식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택일(擇日)을 하여 그 후 치르는 여러 제사(祭祀)의 시간이나 봉분의 방향 등을 본다. 택일은 역시 정시가 한다. 택일을 한 후 소렴(小殮)·대렴(大斂)을 하고 성복제(成服祭)를 하면서 본격적인 장례식에 들어간다. 택일한 결과 3일장, 5일장, 7일장 등 장례 기간도 결정된다. 장지에 매장하는 것을 ‘영장’이라고 하고 그 날을 ‘영장 날’이라고 한다. 영장 날 전날은 ‘일포(日晡)’이고 그 전날이 ‘도새기(돼지) 잡는 날’이다. ‘일포’에는 많은 문상객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상주와 복친들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영장 날에는 아침에 상주, 복친, 기타 동네사람들이 장지에 올라가 매장한다. 장지에서의 작업과 제가 모두 끝나면 짐을 정리해서 귀가한다. 참석자들도 각자 귀가해서 상주와 가까운 친척만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 그 날 저녁 심방을 불러서 굿(‘귀향풀이’)을 한다. 귀향풀이도 상주들과 일부 친척 여자만 참가해서 행해진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며, 남자들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장례식의 중심에는 죽은 자를 모시는 ‘상주(喪主)’가 있는데, 그 범위

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보다 커서 사위나 외손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가까운 친척(親戚)은 복친(服親)으로서 참석한다.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으로서 문상객(問喪客)과 일꾼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소문을 들은 이웃이나 친척들이 상갓집에 모여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상주와 복친이라는 존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성복제 이후이다. 그 때부터 상주는 상복을 제대로 입는다. 또 복친들은 두건을 쓰고 제에 참가한다. 성복제가 끝난 후부터 문상을 받는다.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주>

상주는 망인(亡人)과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서 장례식의 중심이 된다. '큰 상주'인 아들을 비롯해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외손자 등이 상주로 포함된다. 큰 상주는 혼백상(魂帛床) 앞에서 남자 문상객의 조문(弔問)을 받는다. 다른 상주들은 장례식이 계속되는 동안 상갓집에 머물고 일을 본다.

<복친(상주도 복친에 포함되나 상주를 뺀 나머지)>

일반적으로 망인과 가까운 친척이 두건(頭巾)을 쓰고 복친이 된다. 그러나 이웃이나 특별히 친한 사람(친목계를 같이 조직한 사람 등)도 두건을 쓰고 장례에 참석할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은 의무적으로 복친이 되고, 그 외 사람들의 경우 두건을 쓸지 안 쓸지는 상주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상주는 찾아온 문상객 중에서 두건을 쓸 만하다고 판단하면 두건을 권하고, 문상객이 그 마음이 있으면 두건을 쓴다. 복친은 상갓집에 머물고 문상객을 받는 입장이 된다. 일포날에는 복친 중의 '어르신'이 항상 올레 등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문상객을 안내하고 상주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어르신'들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꾼들은 일을 한다.

<문상객>

남자 문상객은 혼백상 앞에 가서 조의금(弔意金)을 올려 절을 하고 상주를 위로해주는 말을 건다. 그 후 복친의 안내에 따라 대접을 받는다. 여자 문상객은 혼백상 앞에는 안 가고 직접 여자 상주에게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전에는 여자 문상객도 혼백상 앞에 갔는데, 그 때도 상주 옆에 가는 게 아니라 혼백상을 차린 방에 직접 들어가 곡소리를 하면서 조의금을 올린다.

<심부름꾼>

‘일포날’은 문상객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라 심부름꾼을 부른다. 심부름꾼은 상주나 복친의 지시에 따라 음식이나 술 등을 나른다. 보통 복친의 자녀 등 10대부터 20대 정도의 남녀가 하고 미혼자가 이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은 복친의 자녀들이 친구를 불러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예가 많다.

<일꾼>

돼지를 잡으러 갈 때나 영장날 관을 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이나 상주의 동창생 등 남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 그 때 상주는 수건·담배·장갑을 주고, 특히 매장 작업이 끝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답례품을 준다(답례품은 상례동에서는 70년대에 폐지되었으나 하례동에서는 현재도 행하고 있다). 여자들은 ‘돼지 잡는 날’, ‘일포’, ‘영장날’의 3일간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역시 일을 하러 온다. 상갓집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일을 하러 가서 갚게 된다. 즉, 소위 ‘수눌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장례식에서 하는 일은 남녀로 분담되어 있다. 여자들은 음식을 차리고,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천막을 친다. 일의 분담에 따라, 그릇들은 여자들의 모임으로 관리하고 천막이나 술 등은 남자들의 모임에서 관리한다. 원래 여자들이 계를 조직해서 그릇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문중에서 갖고 있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가까운 마

을인 중문동에 있는 마트 등에서 도구들을 무료 대여하는 서비스가 시작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의례적 행동에도 남녀의 차이는 뚜렷하다. 남녀 문상객의 행동 차이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밖에 장례 기간 중 제사를 치를 때도 남자들 중에서 혼백이나 관이 안치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상주와 집사뿐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혼백에 있는 방에 들어가 곡소리를 한다. 남자들은 절을 하는데 여자들은 안 한다.(다만 개관을 닫을 때는 여자들도 절을 한다.)

근래의 큰 변화는 장의사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예래동에서 처음으로 장의사를 빌려서 장례식을 한 것은 약 15년 전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해서 장의사를 쓰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마을 사람들은 별로 반갑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마을사람들은 장의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기에 모두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지는 4~5년 정도 밖에 안 된다.

장의사는 관(棺), 수의(壽衣), 상복(喪服) 등 장례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한다. 그리고 집에서 안치소, 안치소에서 장지까지 관과 상주를 자동차로 보내고, 개광(開鑿)을 파서 봉분을 만든다. 그만큼 장례식의 참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영장 날에 상여를 매지 않게 된 것과 봉분을 만들지 않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래 이 두 가지 일은 마을 동네 남자들이 담당했었다. 그 작업이 장의사로 바꾼 결과로 영장 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러한 사정에 대해 한 남자는 “이제 마을공동묘지에 갈 기회는 별초와 자기 집안의 장사(葬事) 정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포 날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자가용의 보급으로 원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문상(問喪)을 오고 있다. 돼지는 평균 4마리 정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장 날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짐과 동시에 장의사 이용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점

점 간소화되었다.

IV. 벌 초

(1) 벌초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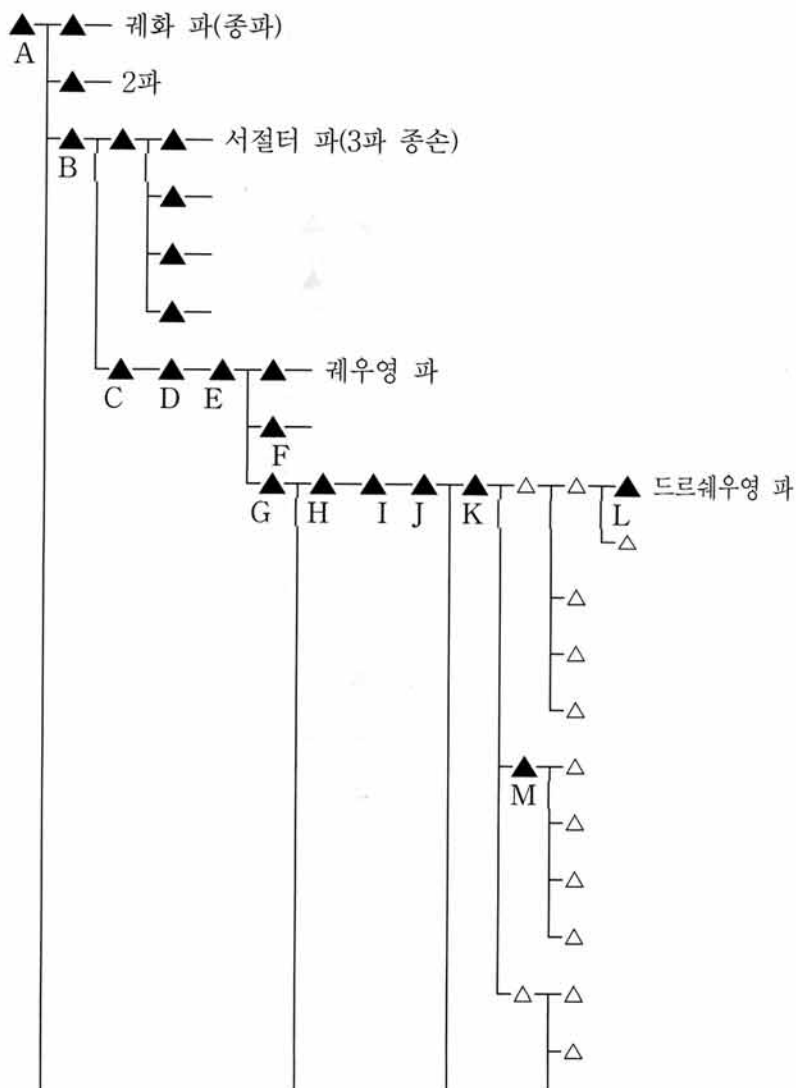
벌초(伐草)는 소분(掃墳)이라고도 하고, 묘지의 풀을 베는 작업을 가리킨다. 현재 벌초는 음력 8월 1일을 전후한 일요일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전의 벌초는 음력 8월 1일 전후로 며칠간에 했다. 요즈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벌초는 남자들에게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해야만 한다.

흩어져 있는 묘를 모두 청소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남자들은 ‘벌초하는 날이 일년에서 제일 힘들다’, ‘벌초가 끝나면 큰짐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으로 이야기한다. 또, 벌초는 풀을 베는 것을 통해서 조상 묘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토지소유권 분쟁 등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땅에 있는 묘를 누가 벌초해왔는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문성윤, 2000). 그러기에 매년 벌초해 오던 묘를 다른 사람이 벌초하거나 비석을 세우면 그에 대항해서 묘주 이름과 연락처를 쓴 팻말을 세울 수도 있다.

벌초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진주 강씨 예래파 내 ‘퀘우영 파’ 및 ‘드르췌우영 파’의 사례>
(▲는 죽은 자를, △는 산 자를 가리키고, 남자만을 표시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케우영 파’는 현재 규약을 만들어서 벌초하는 날을 음력 8월 1일 직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그 날은 케우영 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조상(C, D, E 부부)의 묘를 벌초한다. 2001년도의 작업에서는 아침에 한 군데에 모인 사람들을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조상의 묘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범위로 분담하기 위해서다. 분담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는데, 회장이 서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두 조로 나누었다. 그래서 혈연관계나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그 중 한 조에 동행했는데, C, D, E 부부의 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보다 후대의 묘들(T의 처나 F 등)에서도 작업을 했다. 원래는 각 집안 벌초 때 하는 묘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같은 일가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벌초를 하고 있다. 각 묘지에 도착하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3번 씩 절을 하고, 제물이나 축문은 올리지 않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곧 다음 장소에 이동하고 벌초를 계속한다.

벌초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로 여기 저기 이동하면서 역시 벌초하러 다니는 여러 집안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눈다. 두 조로 갈라진 후에도 그 조 안에서 적당히 분담해서 벌초를 한다.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윗대 조상(C 부부)의 묘지에 모든 사람들이 집합한다. 다른 묘들은 빨리 도착한 조가 작업을 해버리는데, C 부부의 묘만은 모든 참가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벌초를 시작한다. 이 묘지에서의 작업이 끝나면 가까운 식당에 가서 회식하면서 케우영 파에 관한 회의를 한다. 회의는 회비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결혼 잔치가 있으면 소개한다.

‘케우영 파’ 안의 한 집안인 ‘드르췌우영 파’에서는 음력 8월1일에 벌초를 하고 있다. 동시에 그 날은 진주 강씨 예래 입촌조(入村祖) 묘를 벌초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드르췌우영 파’는 종파가 아니기에 몇 명의 대표자만 입촌조 묘로 벌초하러 간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벌초를 한다. 필자는 예래 입촌조 벌초에 따라 가느라 ‘드르췌우영 파’의

작업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먼저 그 집안의 제일 윗대 조상(G 부부) 묘지에 가서 다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H의 자손들과 O의 자손들로 갈라져서 각자 자기 조상 묘들을 벌초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촌조 묘 벌초에 간 사람들도 같이 식당에 모여서 회식을 했다. 회의는 안 했다('드르쉐우영 파'에 관한 회의는 명절과 7월의 야유회 때 가졌다.)

진주 강씨 예래파는 충정공파에 속한다. 예래파 내부는 입촌조 아들 다섯 형제에 따라서 종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라진다. '퀘우영 파'는 3파 중의 한 분파이다. 3파(서절터 파)의 파조인 B부부의 묘는 3파 내부에서 갈라진 5개 분파가 매년 돌아가면서 벌초를 하고 있다. 2001년도는 마침 '퀘우영 파'가 담당하는 해라서 필자가 동행한 조에서 B의 묘를 벌초했다. 입촌조인 A 부부의 묘는 종파 뿐만 아니라 2파부터 5파까지 4개 파에서 대표자를 보내어 음력 8월 1일에 실시하고 있다. 2파는 현재 예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주로 서귀포시 법환동이나 북제주군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2파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입촌조 벌초에 대표자를 보내고 있다.

입촌조보다 윗대가 되는 조상의 묘는 그 조상을 모시는 자손들의 각 파가 돌아가거나 분담해서 벌초를 한다. 그러나 입도조 묘와 그 묘역에 있는 다른 묘는 현재 충정공파 청년회가 벌초하고 있다. 어쨌거나, 대표자가 몇 명 나와서 하는 것이다.

진주 강씨 예래파의 경우 규모가 크고 예래 입촌조 이하만 봐도 네 단계로 나뉘고 있다. 즉, (1)입촌조 부부(종파와 4개 분파의 대표자가 작업), (2)5개 분파 파조부터 그 분파 내의 각 집안 조상까지(퀘우영파의 벌초, 분파 사람들이 모두 작업), (3)작은 분파 파조 이하 몇 세대(드르쉐우영파의 벌초,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작업), (4)부모나 조부모, 부인 등 가까운 세대(집안 사람들이 같이 작업).

한편, 창녕 성씨의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규모에서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1)입도조부터 입촌조 부부까지, (2)입촌조부터 예래동내 세 개 분과 조상까지, (3)분과 내부의 조상들이다. 창녕 성씨의 경우 입도조의 4대 후에는 예래 입촌조가 있다. 현재 중심이 되어 있는 세대는 입도 10대~13대 정도가 된다. 현재 (1)의 입도조로부터 입촌조 부부까지는 음력 8월 1일에 벌초하고 있다. (2)·(3)는 그 다음 일요일로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작업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살핀 바 있는 진주 강씨 예래파의 사례와 다른 점은 윗대 조상 묘소에 먼저 모두 모여 회의와 벌초 작업을 한 후 파(派)마다 갈라지고 벌초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핏줄을 따라가듯이 윗대 조상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들의 묘지를 벌초하게 된다. 그러나 창녕 성씨가 제일 윗대의 조상 묘지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은 진주 강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였다.

(2) 벌초의 사회적 특징

이상과 같은 벌초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벌초 중에는 일반적으로 ‘집안 벌초’와 ‘모듬 벌초 (문중 벌초)’가 구별된다. 전자는 비교적 가까운 조상의 묘에 가서 소규모의 집단으로 작업하는 것이며, 후자는 입촌조나 그 마을 내부의 분파의 공통 조상의 묘에 가서 그 후손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집안 벌초를 하는 집단은 설이나 추석에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범위(‘명절 같이 먹는’ 범위)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반드시 조상과의 대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관계된 사람들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인원수가 많으면 대수가 짧아도 따로 하게 되고, 인원이 적으면 윗대 조상의 묘까지 벌초하게 된다.

벌초에는 여자들은 잘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모듬 벌초’에서는 여자들은 보통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까운 조상인 부모 정도의 묘를 벌초할 때에는 그 집안의 여자들도 참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집

안 식구가 적어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벌초 작업은 남자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원이 모자랄 때에만 여자도 참가하게 된다. 처갓집에 남자가 없을 경우 사위가 처갓집에 가서 벌초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벌초를 할 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네와 젊은이들이 같이 작업을 한다. 벌초를 하는 것이 힘든 작업이라 아주 나이 든 사람은 아예 참가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 중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이 작업을 한다. 때로는(예를 들어 제일 윗대 조상 묘지에 모여 작업할 때) 참가자가 너무 많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어르신네들이 쉬고 젊은이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작업에 참가한다.

더구나 산담이나 외장(산담 주위의 땅)은 작업하기가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낫질이 서툰 사람에게는 그러한 구역을 맡기고, 산담 내부에는 낫을 잘 쓰는 장년(壯年)들이 작업을 하는 등 분담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기계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봉분이나 산담 내부에는 젊은이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많아졌다.

제일 윗대 조상의 묘지만은 처음 내지 마지막에 모든 참가자들이 같이 벌초를 하고 있다. 그만큼 제일 윗대의 묘지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주 강씨 ‘쾌우영 파’의 벌초에는 작업하는 순서가 행렬과 관계없고, 원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묘지에도 벌초하고 있다. 따라서 제일 윗대 묘지와 그 이하 세대의 묘지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제일 윗대의 묘지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통된 조상의 묘지이다. 그러기에 제일 윗대의 묘지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벌초를 통해서 그 집안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벌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벌초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풀이나 나무가 자란 곳을 ‘골충’이라 하며 지역주민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벌초는 골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봉분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뿌리를 뽑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력 8월 이전에 택일해서 벌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조상 묘 가까이에 주인 없는 묘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묘도 같이 벌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묘는 자기 집안 묘보다 먼저 그 땅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그 땅에 자리 잡았다는 점을 존중해서 벌초해준다고 한다. ‘케우영 파’의 파조C 부부의 쌍분 아래쪽에도 주인을 알 수 없는 봉분이 하나 있고, 참가자들 중 일부가 그 묘에 가서 벌초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벌초하는 묘 중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외지에서 들어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묘라고 전해오는 봉분 네 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집안의 회의 자리에서, 매년 그 네 개의 묘를 벌초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이 그 묘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전대로 벌초하게 되었다. 그 때 논쟁을 마무리한 대사는 ‘지금까지 벌초해왔는데, 안 하면 욕먹어’였다. 매년 자기 집안에서 벌초해온 묘를 벌초하는 것은 다른 집안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다.

벌초의 기본은 부계친들이 같이 조상 묘지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벌초는 같이 작업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문중 내지 집안의 통합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제일 윗대 조상 묘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벌초는 외부적으로 다른 집안에 대해 자기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모둠 벌초’와 같은 큰 범위에서 짙게 나타나고, ‘집안 벌초’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집안 벌초’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여자가 작업에 참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위가 처갓집의 ‘집안 벌초’에 참가할 수도 있다. 이는 자기 집안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다른 집안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묘에다가 벌초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

V. 맺음말

영장은 상주를 중심으로 복친과 일꾼이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행된다. 죽은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 등 주위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봉분에 묻히게 된다.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묘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매장할 때에 통장이나 원로회장 등이 매장 작업을 지켜본다. 그들은 매장하는 사람들이 봉분 크기가 너무 크게 하거나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장이 끝나면 봉분을 관리하는 것은 자식들을 비롯한 직계 자손의 책임지고 있다. 벌초는 자손으로서 조상을 모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기 집안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모습을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다. 벌초는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벌초를 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묘가 무연고 분묘로 처리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안의 묘지를 벌초를 하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의 장묘문화는 사람과 사람, 한 집안과 다른 집안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 화순리의 한 노인은 “왜 추석보다 벌초가 중요하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즉, “명절의 제사는 집안에서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벌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명절보다 벌초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기제사나 명절과 같은 죽은 자를 모시는 것과 비교하면, 묘지는 죽은 자를 모시는 자손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공적(公共的)인 존재이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들은 묘지와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적어졌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사람들을 공동묘지에 매장하므로 죽은 자만의 공

간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장하는 데에 장의사를 이용하게 되자 영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앞 장에서 소개한 “이제 묘지에 갈 기회는 별초와 자기 집안의 장사 정도가 되었다.”라는 한 남자의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발언은 묘지가 공공적인 존재로부터 사적(私的)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도에 많이 만들어진 가족공동묘지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가족공동묘지는 개인묘지나 마을공동묘지보다 더욱 사적인 형태의 묘지이다. 처음부터 매장할 수 있는 자격이 가족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⁵⁾ 여러 형태의 묘지 중에서도 환경에 주는 피해가 제일 큰 것은 가족공동묘지이다. 앞에서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나무를 고사(枯死) 시키는 등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모두 가족공동묘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공동묘지가 사적인 형태의 묘지임과 관련이 있다. 묘지의 공공적인 측면이 축소되면서 사적인 묘지인 가족공동묘지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현상이 표면화된 것이다. 필자는 묘지가 사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점이 현재 묘지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동묘지와 장의사의 이용이었다. 이 현상은 최근 20년간에 생긴 일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전통적인 매장문화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묘지와 장의사는 정부 정책과 생활의 현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족·문중 단위의 납골당은 묘지가 사적인 공간이 되어 가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납골당에는 별초마저도 간소화된다. 그만큼 죽은 자를 모시는 공간에 접하는 기회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서만 관리하는 공

5) 예래동에서 필자가 확인한 가족공동 묘지는 세 군데가 있다. 세 개 모두 다 마을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서귀포에 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두 개는 제일 교포가 만든 묘지이다.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위나 외가친척도 같이 매장하는 가족공동 묘지가 있지만 예래동에 있는 가족공동묘지는 부계친과 그 부인만이 매장하고 있다.

간이 되기 때문이다.

묘지 면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은 필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묘 문화 개혁운동은 묘지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산 자와 산 자의 어울림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제주도 장묘문화에 있는 묘지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채, 외국의 사례만을 찬양(讚揚)하고 있다. 더구나 보다 사적이고 죽은 자와의 관계도 희미해지는 납골당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파리의 공동묘지에서 산책하는 것이 ‘산 자와 죽은 자가 어울림’이라면, 제주의 밭에 있는 묘지 옆에서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묘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과 이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만 한다. 기존의 문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울 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도 필요하다. 장묘문화 개혁 운동이 정말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어울림을 지향한다면 전통적인 장묘문화 속에 있는 묘지의 공공적인 성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창석(2001), 「장묘문화시설의 생활공원화 방안」,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장묘문화개혁법국민협의회
- 다카무라 료헤이(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서울학연구』 15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문성윤(2000), 「법률적 측면에서 본 벌초」, 『제민일보』, 2000년 7월 19일자.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박복순(연도불명), 「외국의 장묘시설, 이런 것이 부럽다」,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http : //www.jangmyo.or.kr](http://www.jangmyo.or.kr) 중 『장묘컬럼』).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 I』, 濟州文化資料叢書 1.

한경구 · 박경립(1998), 「한국인의 죽음의 공간에 관한 건축인류학적 고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송현이광규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집문당.

<감사 말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강원규 씨를 비롯한 예래동 주민 여러분(특히 각 통 통장님)과 예래동사무소 직원 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자료수집은 불가능했다. 그밖에도 많은 제주도민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다. 발표 기회를 주신 제주학회 전경수 회장님과 초고를 읽어주시고 코멘트를 주신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와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에서는 활동내용에 관한 많은 자료를 받았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의 호의에 보답할 것을 약속하고 싶다.

연구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정부의 장학금과 松下國際財團 및 庭野平和財團의 연구지원으로 조달하였다. 관계하는 기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